

국내 상장회사 영문공시 현황

이 수 원 선임연구원 (swlee@cgs.or.kr)

- ▶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, 국내 상장회사의 영문공시 현황을 살펴봄
- ▶ 최근 국내 상장회사의 영문공시는 과거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나, 공시의 종류나 양 모든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
- ▶ 향후 영문공시 확대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공시 투명성 확보할 필요가 있음

배경

- 최근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⁴⁾ 및 스투어드십 코드의 도입⁵⁾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
 -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2016년 12월 말 31.84%에서 2017년 8월 말 33.87%까지 증가하였으며,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거래대금 합계도 약 8조 3,556억원
-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상장사의 영문공시 활성화를 들 수 있음
 - 영문공시가 활성화 될 경우 기업정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향상되어,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제고할 수 있음
 - 또한, 관련 연구⁶⁾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어 국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
 - 실제 한국거래소는 2016년 5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, 글로벌 투자 수요 유치를 위하여 영문공시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영문공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⁷⁾

4) 12월 결산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17 사업연도 상반기 결산결과 전년 동기 대비 (연결기준) 영업이익은 19.2%, 당기순이익은 24.4% 증가함(한국거래소 보도자료, 2017.8.17, "유가증권시장 2017사업연도 상반기 실적(12월 법인)")

5)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, 2016.12.19, "2016년 12월 19일,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 공표"

6) 박경서, 이은정, 2006, "외국인투자자가 한국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", 「금융연구」 20권, 2호

7) 한국거래소 보도자료, 2016.5.9, "외국인투자자 등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영문공시 활성화 추진"

- 이에 이 글에서는 상장회사의 영문공시 현황을 살펴봄
 - 우선 국내 영문공시의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, 상장회사의 영문공시 횟수를 파악함
 - 그리고 상장회사들이 주로 어떠한 내용을 영문으로 공시하고 있는지, 영문공시를 활발하게 하는 회사의 특징은 어떠한지 알아봄

국내 영문공시 제도 개요

- 국내 상장회사의 영문공시는 한국거래소 영문상장공시시스템(engkind.krx.co.kr)을 통해 이루어지며, 세 가지로 구분됨
 - 첫 번째는 공시 제목 번역 서비스로,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며 공시의 내용이 아닌 제목만 영문으로 번역하여 보여주고 있음
 - 두 번째는 공시 제목 및 내용 번역 서비스로 이 역시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며 공시서식에 맞춘 공시에 한하여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보여줌
 - 단, 상장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환과정의 오류 가능성 문제로 번역을 제공하지 않음⁸⁾
 - 마지막으로 상장회사에서 작성하여 공시하는 영문공시(이하, 자발적 영문공시)가 있음

공시 현황

- 이 글에서는 상장회사에서 직접 영문으로 작성하는 공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
 - 비자발적 영문공시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괄적으로 제목 혹은 내용을 번역하여 공시하고 있으므로,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님
 - 한국거래소가 수시공시 영문변환 서비스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국내 상장회사의 자발적 영문공시를 수집함
- 2010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자발적 영문공시를 1회 이상 한 회사는 78사이며,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45사, 코스닥 상장사는 33사임(〈표 1〉 참조)
 - 해당 기간 동안 78사는 총 1,791건을 공시하였으며, 자발적 영문공시를 많이 한 상위 10개사가 전체 공시의 58.29%를 차지함
 - 추이를 살펴보면, 수시공시 영문번역 서비스의 영향으로 자발적 공시는 2010년에서 이후 줄어들었다가, 2016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
 - 2017년의 경우 8월 31일까지의 집계임에도 423건이 공시되어 자발적 영문공시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

8) 한국거래소 보도자료, 2010.9.8, "KRX,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수시공시 영문변환 서비스 제공"

○ 이러한 추세는 한국거래소의 영문공시 활성화 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음

□ 다만, 영문공시를 1회 이상 한 상장회사의 수는 여전히 적은 상황임

〈표 1〉 연도별 자발적 영문공시 수 추이

연도	유가증권	코스닥	계
2010	94(9)	132(5)	226(14)
2011	87(8)	70(4)	157(12)
2012	81(6)	57(5)	138(11)
2013	95(7)	56(9)	151(16)
2014	103(8)	56(9)	159(17)
2015	103(9)	59(10)	162(19)
2016	250(13)	125(26)	375(39)
2017*2	324(15)	99(35)	423(50)
계	1,137(45)	654(33)	1,791(78)

*1 괄호 안은 해당연도에 자발적 영문공시를 1회 이상 한 상장사의 수임

*2 2017년은 8월 31일까지의 공시임

영문공시 내용

□ 조사 기간 동안 상장회사의 자발적 영문공시는 매출액 변동, 실적 예고 등 대부분 실적과 관련되어 있음(〈표 2〉 참조)

- 그 다음으로 기업설명회 개최를 안내하는 공시가 29.70%임
- 주주총회와 관련된 공시는 6.53%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보임

〈표 2〉 자발적 영문공시의 내역

구분	수	비율
실적관련	765	42.71%
기업설명회(IR)	532	29.70%
기타수시공시	178	9.94%
주주총회 관련	117	6.53%
재무관련	72	4.02%
배당관련	62	3.46%
감사보고서	31	1.73%
투자관련	17	0.95%
임원관련	15	0.84%
조직의 변경	2	0.11%
계	1,791	100.0%

영문공시 상장사와 외국인 지분율

- 2017년 중 자발적 영문공시가 있었던 회사(이하, 영문공시 그룹)는 외국인 지분율이 비교적 높음⁹⁾
 - 자발적 영문공시 그룹 48사¹⁰⁾의 2016년 12월 말 기준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25.92%로 영문공시 그룹이 아닌 상장사 2,081사의 평균 외국인 지분율 6.18%에 비하여 매우 높음

소결

- 국내 상장회사의 자발적 영문공시는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
 - 그러나 공시의 대부분이 실적발표, 기업설명회 개최 등에 집중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에 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적시에 받아보는 데 한계가 존재함
 - 또한, 영문공시에 나선 상장회사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
- 영문공시를 하는 상장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음
 -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나, 외국인 지분율이 상장회사의 자발적 영문공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움

9) 영문공시와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요함

10) 2016년 12월 말 이후 상장된 2개사로 인하여 <표 1>의 50사와 차이가 있음